

01 교회소식

이스라엘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

개척 때부터 기도해 온 이스라엘 선교의 비전이 '2009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이후에도 아름답게 열매맺어 가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_ 팔복 시리즈 4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이뤄 영적 배부름의 축복을 받는다.

03 기획특집

불가사의한 고대 유적에 담긴 비밀

파라미드, 스텝크스 등 불가사의한 고대 유적은 과연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에서 그 해답을 알아본다.

04 간증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령시대

콩고민주공화국 아달버트 선교사가 전하는 선교 소식과 하나님 품에 돌아와 참 행복을 얻은 사태켄 형제의 간증.

만민뉴스

제599호 2013년 9월 1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땅 끝 이스라엘에 맺은 아름다운 열매

“이재록 박사님께서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일들은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2009 이재록 목사 초청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시 강사 이재록 목사의 환자 기도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치료 사실을 확인하고 간증하기 위해 단으로 모여 들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크리스탈포럼 주최로 기념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책자, 신문, 방송을 통해 이스라엘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나 영적 성장에 힘쓰고 있다.

지난 9월 5일부터 이스라엘 텔아비브 리빙스톤교회에서는 새해를 맞아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믿음의 분량』을 성도들이 함께 읽으며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다. 이 행사는 담임 다니엘 로젠 목사(크리스탈포럼 회장)가 이 책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고의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성경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니산월을 첫 달로 하나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전까지는 민간력을 사용했고 출애굽을 기점으로 니산월을 신년으로 삼았다.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은 티수리월에 신년이 시작된다. 유대인들은 가족끼리 모여 사과를 꿀에 찍어 먹으며 달콤한 새해를 기원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도들이 새해 첫날부터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을 읽으며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쓰게 된 것은 이스라엘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이다.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쓰며 개척 때부터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왔다. 마침내 교회 개척 25주년을 맞는 2007년 7월 25일부터 777일간 이재록 목사와 선교팀은 이스라엘 선교를 이루며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 나사렛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곳곳을 방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을 전했다.

12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방문하며 베들레헴, 아슈켈론, 브엘세바, 예일랏, 텔아비브, 나하리아, 예루살렘 등에서 많은 집회를 했다. 이 목사를 통해 증거된 생명의 말씀과 그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목도한 현지 목회자들은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됐다.

결국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www.acf.org.il)이라는 연합단체를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2009년 9월 6~7일에는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이스라엘의 중

심부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연합대성회를 개최했다. TBN 러시아, 엔라쎌, CNL, 디지털 콩고 등 33개 방송사를 통해 220여 개국에 송출된 가운데 강사 이재록 목사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히 선포했다.

이스라엘은 복음이 시작된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다. 국민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교를 신봉하며, 극소수의 기독교인은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위축돼 있었다. 그러나 연합대성회 이후 이스라엘 교회는 활기를 띠고 특별히 크리스탈포럼을 중심으로 부부 세미나, 청소년 세미나 등 활발한 사역을 펼치며, 매년 찬양 페스티벌을 개최해 이전과 달리 공공장소에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

이스라엘 목회자들은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성도들을 기도해 주며 회개와 치료의 역사

를 체험하고 있다. 또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해외에서도 집회를 인도하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도들은 GCN 방송(www.gcntv.org), TBN 러시아, CNL, 홀리갯 TV, 로드로이드 등 방송과 인터넷,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과 만민뉴스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신앙 성장을 이루고 있다.

다니엘 로젠 목사는 “이재록 박사님께서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일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4년 전 연합대성회 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실 때의 감동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박사님께서서는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시고, 목회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크리스탈포럼은 부흥하고 있고 위대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6)

일반적으로 ‘의(義)’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또는 옳은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흔히 의리를 지켜라’,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을 좇아 나가는 것 곧 선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성결을 이루기까지 거쳐야 할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면 영원히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배부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옛말에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참기 어려운지를 잘 나타내 주지요. 옛날 어르신들은 너무 가난해 먹을 것이 없자 나무껍질이나 풀뿌리로 죽을 끓여 먹으며 겨우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자기 지식까지 잡아먹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왕하 6:28~29). 그런데 배고픈 것 못지않게 목마른 것도 견디기 힘들습니다. 찜통 같은 무더위에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낄 때 한 모금의 물만 마셔도 살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의를 이루기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음식과 물을 갈급히 구하는 것처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뜻을 알고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죄악을 버리고 진리인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주님 마음을 닦아 신의 성품에 들어가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시는지요? 혹여 ‘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말씀을 들으니까 배부르고 만족스럽다.’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약 2:17). 그런 사람은 항상 먹지 못해 배고픈 사람과 같고, 물이 있어도 마시지 않고 목말라 하는 사람과 같지요.

2.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빛 가운데 행해야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고, 이어지는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자 곧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영적 양식이요, 목마름을 시원케 하는 영적 음료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인자의 살이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살, 곧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듣고 양식 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지

머리에 지식으로만 담아 두는 것이 아니지요. 듣고 배운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기도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으로 깨달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듣고 배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맛있고 영양이 있는 음식도 수분과 함께 섭취하지 않으면 소화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도 진리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순종해 악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할 때 말씀이 소화돼 내 것이 되고,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과 음료가 무엇인지 깨달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말씀과 위배된 자신의 행동과 마음, 생각을 찾아 부족한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가야 합니다.

또한 어찌하면 주님 사랑에 보답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뤄드릴까 궁구하며,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갈급하게 의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열심히 순종함으로 죄악을 신속히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3. 아버지의 믿음으로 영적인 배부름의 축복을 받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을 사모하기에 ‘버리라’ 하신 것을 마음과 생각, 행함에서 신속히 버리게 됩니다. ‘하지 말라’ 하신 대로 하지 않으며, ‘지키라’, ‘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고 그대로 행해 나가면 죄악을 버리고 성결한 영의 마음을 이루게 됩니다. 곧 영의 사람이 되지요. 이것이 곧 영적인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을 속 빼앗은 온 영의 사람이 됩

니다. 하나님을 닮은 만큼 그분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 곧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읽이요...”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지켜 행하는 아비의 믿음으로, 이것 역시 영적으로 배부름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비와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하려면 영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고, 믿음이 쑥쑥 자라야 합니다. 육적으로도 아이가 태어나 젖을 먹고 밥을 먹으면서 쑥쑥 자라야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 의를 행해 나가면 믿음이 성장해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순종하는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즉 아비의 믿음이 되어 영적인 배부름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성장해 아버지들의 신앙을 소유하면 만사가 형통한 축복이 임하며, 원수 마귀 사단을 능히 이기고 지배하며 다스리게 됩니다. 또한 신령한 차원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 순종하지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한 대로 신령한 차원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며 번사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형통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시험 환난을 당할 걱정이 없습니다.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해도 피해 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만나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진정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 구원과 응답의 축복은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영적인 열매들로 영의 사람, 온 영의 사람이 되어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자녀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백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가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불가사의한 고대 유적은 과연 누가 언제 만든 것일까?

불가사의(不可思議)란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이 이상하고 아름답'이란 뜻이다. 고대 유적 중에는 불가사의한 것들이 있다.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놀라운 지식과 기술이 그 안에 담겨 있으며, 오히려 현대 기술보다 뛰어난 면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를 비롯해 �핑크스, 나스카 지상화, 미스터리 서클 등은 과연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든 것일까? 자세한 것은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 설교를 참조하기 바란다.



에덴동산의 생령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남긴 문명의 자취

첫 사람 아담은 생령으로서 풍요로운 에덴동산에 살면서 무수한 세월 동안 만물의 영장으로서 대단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생령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 창설하신 에덴동산과 장차 아담이 범죄한 후 살아갈 지구, 곧 인간경작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지구를 지

배하고 다스리며 수많은 자녀를 낳았다.

생령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에덴동산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비행체를 만들어 에덴동산과 지구를 오가며 이집트 나일강 주변을 자주 찾았다. 이곳에 무엇인가 상징적인 것을 남기고 싶었던 아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신만의 특별한 건물을 세우기 위해 독특하면서도 웅장한 규모와 모습의 건축물을 구상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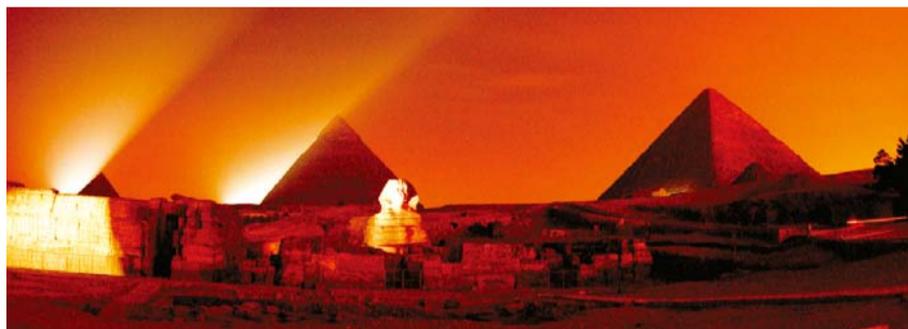
다. 그것이 바로 '피라미드'이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 발견되는 모든 피라미드를 생령 아담이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다. 피라미드의 시초가 아담을 통해 시작됐다는 것이다.

생령 아담이 범죄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이 제한적으로 이 땅에 오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남긴 흔적들이 있는데, 불가사의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집트 기자 지역에 있는 세 개의 피라미드

가장 큰 피라미드는 높이 147미터로 2.5톤에 달하는 거석(巨石)이 무려 230만 개나 사용됐다. 또한 거석들이 마치 두부처럼 반듯하게 잘려서 빈틈없이 끼워 맞춰져 있다. 총 중량이 600만 톤이 넘지만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돼 장구한 세월에도 겨우 5밀리밖에 침하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사각뿔 모양으로 네 밑변이 거의 완벽한 정사각형을 이루고 있으며, 거의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이 외에도 세 피라미드가 오ര은 별자리 중 세 개의 별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

이처럼 피라미드는 고도의 건축 기술과 수학, 천문학적 지식으로 이루어졌다.



피라미드 앞에 있는 �핑크스

세 개의 피라미드 중 가운데 피라미드 앞에 �핑크스가 세워져 있다. 마치 세 개의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의 얼굴에 사자의 몸통을 가졌으며 동쪽을 향하고 있다. 전체 길이는 약 74미터, 높이는 20미터이며, 한 개의 돌을 깎아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원석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것이다.

나스카 지상화

페루 남부 나스카 고원 320제곱킬로미터 대지 위에 200여 개의 기하학적 무늬와 30여 개의 동물 형상이 그려져 있다. 그림들이 얼마나 큰지 아주 높은 곳에서 보지 않으면 그림의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어 새 그림은 120미터에 이르며, 8킬로미터에 달하는 도형도 있다. 원숭이 그림은 길이 122미터, 폭 91미터인데, 선 하나로 이어가며 그린 그림이다. 또 거미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거미로서 아마존 열대 우림의 오지에만 살고 있는 '리치놀레이'를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스카 고원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불모지이기에 역사적으로 사람이 정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미스터리 서클

들판 한가운데에 수십 미터 이상의 원형 또는 기하학적 모양으로 농작물이 눌러 있는 것을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한다. 특징은 야간에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지고 날씨, 지형, 자연조건과는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스터리 서클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인위적인 것은 농작물의 줄기가 완전히 꺾여 곧 시들어 죽는 반면, 진짜 미스터리 서클은 농작물의 꺾인 줄기 부분에 마디가 생겨서 휘어진 채로 계속 자란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한가위

September 2013.9.15~9.21

주요 프로그램 안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운영 4
- 찬양 9-13
-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2
- 마음발을 개간하자 1-2
- 믿음의 분량 11-15
- 창세기 강해 79-83
- 요한일서 강해 29-31

GCN TV 설교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2-6(이수진 목사)
- 경비함(이미영 목사)
- 능력 2(이희선 목사)
- 의와 틀 2(신동초 목사)
- 새 예루살렘 1(신동초 목사)
- 'GCN TV특강' - 십자가의 도 12-13(정구영 목사)

간중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13, 17-19, 21, 23
- GCN 간중스페셜 18-22
- 만민의 간중 1, 8, 10, 11

해외성회 시리즈

- 뉴욕연합대성회 2
- 뉴욕연합대성회 종합편

찬양 프로그램

- 찬양과 경배 (3) 74-78
- GCN 금요찬양 스페셜 23-28
- 만민하게수련회 캠프파이어 1-2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제 이름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의 첫 글자 '태초'에서 '태'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의 마지막 글자 '아멘'에서 '멘'을 따서 지어진 이름 '태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오랜 세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 음란물을 접한 저는 대학생이 되자 술, 여자, 게임 등 점점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죄에 대한 보응이었을까요? 군 입대하던 2005년부터 온몸으로 번진 아토피성 피부염은 무려 7년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또 우측 무릎 연골판이 주저앉는 부상을 입은 뒤로 자고 일어나면 무릎의 축이 돌아가 있기도 하고 비가 오려고 하면 저리고 시큰거려 고통을 받았습니다.

허랑방탕하던 삶에서 통회자복의 은혜가 임해

특히, 2012년 7월에는 부정맥 증상이 심해져 마치 전력 질주를 하는 사람처럼 심장의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이렇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너머 산이라더니 약을 복용했는데 부작용으로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겼습니다. 이에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자 두드러기는 가라 앉았지만 그 자리에 전보다 더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이 번졌지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괴물과 같았습니다.

때마침 당시 지도교사이신 기명숙 전도사님이 심방을 오셔서 하계수련회 참석을 권유하시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자 비로소 세상 노래 파일들을 삭제하고 '십자가의 도' 설교를 mp3에 담아 들었습니다. 그제야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은혜가 됐지요.

2012년 8월, 하계수련회에 참석한 저는 첫째날 저녁 집회 때 교역자 회장인 이수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제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어 기도회 시

“ 돌아온 탕자, 저의 젊음을 불태워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



서태멘 형제 (4청년선교회)

간에 폭포수같이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며 연신 하나둘씩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나왔지요.

수련회를 마치고 저는 당장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과 게임 파일들을 정리한 뒤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밤 열리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질병을 치료받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니

그 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치 제 몸에 선풍기 바람이 불어 열이 나가는 느낌이 들더니 7년 동안 괴롭히던 아토피성 피부염이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무릎 연골판 부상으로 도저히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꿇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없어졌지요. 더불어 부정맥 증세도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금년 전반기에 열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마지막 날 행운권 추첨시간에는 상도 받게 돼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 번 체험했습니다. 또한 이희선 목사님이 전해 주신 지옥의 참상을 들으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를 만나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8월, 만민 하계수련회 때는 교회 공식 블로그인 'm-story' 촬영 봉사를 하면서 당회장님을 가까이에서 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고 치료받은 분들이 간증할 때 해맑게 웃으시며 행복해하시는 모습과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는 진한 사랑에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누군가 제게 30년 세월 동안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느냐고 묻는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 지난 1년 동안의 삶'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며 영상 제작의 재능을 살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늘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뭌베레 말리로 아달베트 선교사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2006년, 저는 무힌도 무코과 장로님(케냐 나이로비만민성결교회)이 건네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영혼육』(상)을 읽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성결의 복음을 사모하게 됐고,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했지요.

2012년 1월, 저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선교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영혼들을 성결의 복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당회장님을 알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사역하시는 정명호 목사님(예수교 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명호 목사님이 권능의 손

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금년 5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지역 5개 도시에서 정명호 목사님이 목회자세미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부뎀보 목회자세미나 시에는 침례교회, 성공회 등 교파를 초월한 총회장 및 목사님들 450명이 참석했지요. '믿음의 분량'에 대한 강의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믿음의 단계가 낮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아프리카를 깨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2동 109번지 복성 B/D 7동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총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8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